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4.12.(제3749)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부활절 제2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5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
니하리로다 (시편16:9)

※경 배 찬 송..... 8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판단과
한계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제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
다. 아멘.

※교 독 문... 133번 (부활절1) ...다 같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진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
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
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안홍순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 찬 예 식.....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박재훈 권사

구 약 사 무 열 상 17:39-49

신 약 로 마 서 6:8-11

찬 양... 살아계신 주 ...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인생의 대진표를 새롭게 쓰십시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9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324	유 치 부	19
주일실시간방송예배	35	유 초 등 부	22
첫 단 추 기 도 회	93	중 · 고 등 부	21
목 장 모 임	.	청 년 부	21
수 요 성 서 연 구	51	예 수 소 망 반	32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4	생 명 의 삶	38
금 요 성 령 집 회	53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6	합 계	160
합 계	635	합 계	

현 금			
주 일 현 금	1,728,000	감 사 현 금	1,840,000
교회학교현금	109,600	생 일 현 금	200,000
월 정 현 금	3,300,000	선 교 현 금	30,000
십 일 조	7,360,000	특 별 현 금	3,100,000
		부활감사현금	49,343,000
합계 67,010,6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열왕기하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골로새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4월 15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구약 12과

본문 : 에스라 7장 1-10절 외

- 금 주 기 도 : 문미영 권사
- 다음주기도 : 문정은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4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동수 최명애	김영화 이호순 정미애 최명희 최은주 황문연
안내위원	구용연	강용국 노복순
강단헌화	(조상현 김현숙) 박선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지난 주일 증언

절망을 묻고 희망을 깨우라

구약 호세아 6:1-2

신약 로마서 6:8-11

설교 : 권오진 목사

인생을 살다보면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절망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번아웃(Burn-out)'의 절망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더 유능한 부모가 되어야 하며, 더 완벽한 외모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성취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고작 이것뿐인가?"하는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절망은 '비교의 절망'입니다.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을 열면 타인들의 화려한 모습들이 쏟아집니다. 그 속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은 초라해 보이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나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실'의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 파산,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한 이별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현대인이 겪는 이 모든 절망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의 실패에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돈과 성취와 명예라는 성벽을 쌓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말씀은 그 캄캄한 무덤의 벽

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가 되시기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절망이 아니요 희망인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 상징이나 누군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명백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을까요. 세가지 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경 기록이 가진 놀라운 정직성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면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성경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1세기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유력한 남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약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편견을 감수하면서까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복음서의 서술 방식이 신화 특유의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는 투박한 현실성을 띠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전설과 신화를 연구한 사람이다. 복음서의 부활 기록은 전설 특유의 화려함이나 장식적인 묘사가 전혀 없다." 부활 후 예수께서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제자들이

그분의 못 자국에 손을 넣는 등의 묘사는 신화적 서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목격자의 구체성'입니다. 루이스는 복음서가 신화라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서투르게 쓰인 신화일 것이며, 반대로 사실이라면 인류가 마주한 가장 정직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빈무덤의 증거입니다. 영국의 변호사 출신 언론인이었던 프랭크 모리슨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예수의 부활이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얼마나 거짓된 허구인지를 폭로하고자 그는 성경을 읽고 철저한 사실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모리슨은 당시 예수를 처형했던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의 시신을 공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보라, 예수는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거대한 돌(약 1.5~2톤)은 안쪽에서 인봉되어 있었고, 무장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설은 당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리슨의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텅 빈 무덤은 부활이, 신화나 관념이 아닌 역사적 실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스승이 처형당하자 비겁하게 도망치고 문을 걸어 잠갔던 겐쟁이들이, 불과 몇 주 만에 목숨을 걸고 광장에 나와 부활을 외치게 된 심리적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환상이나 집단 최면, 혹은 스스로 조작한 거짓말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기꺼

이 내던지는 집단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유대인이 삶의 기반을 통째로 바꾸고 순교의 길을 간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으며 그 사건이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믿고 싶은 사람들의 환상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굴복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성 증인이라는 정직한 기록, 반대자들을 침묵시킨 빈 무덤, 그리고 겐쟁이를 순교자로 바꾼 실제적 만남은 부활이 우리 믿음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증명합니다.

부활의 현대적 의미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나의 지친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일으키다'의 히브리어 '쿠움'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혹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수리' '하려고만 합니다. 땀방질하고 순간의 위기를 넘기지만 또 다시 닥치는 더 큰 위기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 하십니다.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John Wesley) 목사님은 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 속에서 죄의 지배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권능'이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살아 있는 자'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자오(ζάω)'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상태를 말하는 '비오스(Bios)'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자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매마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인 '자오'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살아 숨 쉬는 '자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결코 마지막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패배가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사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확증해 주시는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님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교의 무덤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음을 이겼다. 너는 죽음을 이긴 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녀다." 이 부활의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성공과 실패의 일회일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실천사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지냈던 무덤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무덤

속에 묻고, 부활의 아침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결단합니다.

첫째, 예수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통장 잔고나 타인의 평가, SNS의 좋아요 숫자에 맡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암송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부활의 자녀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고 무덤의 그늘을 몰아낼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셋째 날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디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이탈재'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셋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망으로 견뎌내십시오.

셋째, 부활의 희망을 전하십시오.

부활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번아웃과 비교와 허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부활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무덤의 돌문을 굴러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을 묻고 희망으로 새롭게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김준수 최희성) (박범택 윤옥희) (신중우 김영미) (허중수 강명희) (김명중 장계순) (김성점 이윤진) (김수녕 최정애) (김정문 유은종) 노선우 노현우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손세운 이연순 장은숙 (전상주 최옥자) 정옥자 (조규성 정미애) 조순임 조혜자 (차상옥 석진숙) 최경애 최난주 홍정자

월 정 헌 금 김준자 (권영만 최명희) (김광선 김영중) 김선경 (김성옥 이현희) 김연혜 (김의점 여혜순) (노정훈 안명숙) 박석순 (박정화 조인자) 박현중 (손희열 윤순례) (신웅식 최진여) 심유진 유영순 유윤자 이경애 (이능하 김기열) (이서구 김정희) 이성주 이찬주 이혜순 (정성규 심성희) 최경아 (최은규 장미자) 홍완숙 (홍준일 김현주)

감 사 헌 금

김미광 : 부족하였지만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장로서 남은 시간 교회를 위해 끝까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김순영 : 지금까지의 삶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경구 :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황한규 유정희) : 은혜 안에 사순절 말씀 순례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강정희 :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게 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으로 주일성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 믿음으로 주일성수와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동수 전순남) : 40일 동안 로마서의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 되게 하소서.

(김선옥 구용연) :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로튼가족 :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희열 윤순례)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범 차진영 이훈민)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제인 신우) :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실 황문연) :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찬주 :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임선희 : 특별새벽기도회에 말씀으로 은혜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차월 : 주님! 사순절 40일의 순례길을 함께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미애 : 40일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예배에 우리 부부가 함께 순례의 길을 묵상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며 기도로 간구하는 일들도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현 조윤정) : 주님 감사합니다. 일현, 윤정의 미래를 책임져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형준 김미경 은서 은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윤기 : 새생명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무 명 : (배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부활생명의 신앙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맛있고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 잘 먹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 교 헌 금 노정훈 오혜리

생 일 헌 금 김순영 이윤진 장미자

특 별 헌 금 허중수 강단현화 (채의병 문정은)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헌금함 교체 : 주보와 헌금봉투는 각 목장별 개인 칸에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주 부임심방 : (김성수 주현순) 이정임 박선례
- 글로리 70 찬양대 연습 : 오늘 오후 1시에 대예배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 교회학교 교사대학 : 18일(토/오후1-3시)-19일(주일/오후3-5시) 중예배당에서 있습니다(강사 : 김기승 목사, 일산 세길교회).
- 구역인사위원회 : 26일(주일) 오전 9시 30분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창립70주년 기념주일 및 흠커밍데이 : 26일(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모임안내

- 한나목장 모임 : 오늘 오후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계삭회(찬양제) : 14일(화) 오전 10시 30분에 흥제교회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 생명의 삶 휴강 : 수요일(15일)과 토요일(18일) 휴강입니다.
- 지역나눔 반찬봉사 : 18일(토) 오전 9시에 만나홀에서 있으며, 배달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오늘 점심식사를 후원해 주신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권사 류준혁 집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키위를 후원해 주신 김풍옥 김정현 김상길 정윤희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4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19일(주일)
- 창립70주년 기념주일, 흠커밍데이 : 4월 26일(주일) 오전 11시
- 종탑이전식 : 4월 26일(주일), 3층 입구

■ 금요성령집회 (4월 17일)

찬	양	메	나	햄	찬	양	단
설	교	권	오	진	목	사	

■ 주일아침예배 (4월 19일)

대	표	기	도	이	평	식	장	로
---	---	---	---	---	---	---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4초원
- 다음 주 : 1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